

# 아이스박스 타고 대서양 표류하다 구조된 남성

스티로폼 박스를 타고 열흘 넘게 대서양을 표류한 어민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호주알두 호드리게스(44)는 브라질 북부 오리아포키에서 지난 8월 10일 어선을 타고 대서양으로 나갔다. 그가 탄 어선은 프랑스령 기아나까지 이동, 3일 동안 조업하고 귀항할 예정이었다.



▲ 표류 중 발견된 호드리게스와 구조 당시의 모습. 사진=ahoradigital.net

하지만 어선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침몰했다. 호드리게스는 "이유는 모르지만 균열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서둘러 탈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호드리게스는 성인 1명이 겨우 앉아 있을 수 있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타고 침몰하는 어선에서 탈출해 11일간 대서양에서 표류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50km 떨어진 수리남 해역에서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다.

호드리게스는 구조됐지만 즉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수리남 당국이 신분증 등 아무런 서류를 갖지 않고 자국 영해로 들어온 호드리게스를 보고 밀입국을 의심하면서 조사를 이유로 그를 잡아둔 때문이다.

호드리게스는 "아이없기도 했지만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면서 "표류 끝에 목숨을 건지고 보니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간 수리남에 억류돼 있다가 조국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었다.

침몰한 어선의 생존자가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자유 만끽하려던 남편에게 닥친 불운



▲ 출장중 복권에 당첨된 찰스 스미스. 사진=버지니아 복권협회

출장길에 복권을 구매한 한 남성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 사는 찰스 스미스는 지난 7월 출장길에 나섰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아내에게 농담으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전화할게!"라고 말했다. 당첨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고 모처럼만에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려고 '폼수'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만 하는 불운(?)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집을 나서며 구매한 복권 한 장이 그만 1등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미스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아내는 믿으려 들지 않았다.

당첨금 22만 7,037달러를 수령한 스미스는 복권 협회와 한 인터뷰에서 "아내는 여전히 내가 농담하는 줄 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또 "번호를 가족들 생일을 기준으로 4-6-8-12-15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령한 당첨금으로 우선 공과금 청구서 등 급히 지출해야 하는 것부터 처리하겠다."면서 "남은 돈은 어떻게 쓸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버지니아 복권협회에 따르면 스미스가 구입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은 74만 9,398분의 1에 불과하다.

# '희귀종 앵무새' 아니고 '탈색한 앵무새'

탈색 앵무새를 희귀종 앵무새라고 속여 팔던 일당이 검거됐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최근 지방도시 로사리오에서 남성 4명을 야생동물 보호법과 사냥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한 여자주인으로 부터 "이상한 색을 가진 귀한 앵무새를 상자에 넣어 집집마다 다니며 파는 청년들이 있다. 평소 TV에서도 본 적이 없는 노란 앵무새들이다. 밀렵한 보호종을 파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들의 집을 수색해 앵무새 7마리와 18마리가 갇혀있는 상자 2개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죽은 앵무새 15마리가 발견됐다.



▲ 경찰이 구조한 탈색 앵무새들. 사진=tn.com.ar

경찰에 따르면 청년들은 앵무새를 과산화수소수에 넣어 탈색한 뒤 팔아왔다. 과산화수소수에 잠긴 앵무새는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탈색이 됐다. 청년들은 이렇게 색이 변한 앵무새를 아마존 밀렵 길은 곳에 서식하는 희귀종이라면서 팔다가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죽은 앵무새들은 탈색과정에서 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당국은 "새를 과산화수소수에 빠뜨리는 건 생명체를 독극물에 넣는 것과 같다."면서 "구조된 앵무새들은 운이 좋아 죽지 않은 경우였지만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고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당국은 "새를 과산화수소수에 빠뜨리는 건 생명체를 독극물에 넣는 것과 같다."면서 "구조된 앵무새들은 운이 좋아 죽지 않은 경우였지만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근한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Brookhurst St	Lampson Ave	Euclid
<b>Yoon Chiropractic</b>		
Garden Grove St		
22 Fwy		